

# 산지소득 증대대책

남 성 현 /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장

## 1. 추진배경

산림은 목재의 생산지일뿐만 아니라 수백만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이며 자연으로 복귀코자 하는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는 휴양의 장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산림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무한한 효용을 끌어낼 수 있는 자원의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전국토의 65%라는 막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토양 및 생태계 보전, 수원함양등 기본적인 공익기능으로 무려 34조6천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소득으로의 회수액은 1조1천억원('97)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임업육성보다는 황폐지 복구를 위한 치산녹화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과 본격적인 목재생산 소득이 가능하려면 앞으로 20~30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산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지속화시키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림 자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업소득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하고 산림의 다양한 자원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복합생산기지로서의 산지자원화 및 산업화 추진이 절실하다.

대통령께서도 농림부 업무보고('98. 4.16) 및 국정과제 보고시('98. 6.29) 이 점에 대하여 누차 당부하신 바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산지소득증대대책을 수립, 이를 추진중에 있다.

## II. 목표와 추진방향

'97년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 5,853억원을 2002년까지 1조원대로 끌어올리고, 현재 585만원으로 추정되는 호당소득도 1,2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목재자금율을 현재 4%수준에서 2002년에는 9%로 높여 연간 1억\$

의 수입대체효과를 창출하고, 임산물 총수출규모 3억3,900만\$을 5억\$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식용·관상·생물·휴양·목재자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고, 둘째, 임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수요를 창출토록 하며, 셋째, 임산물유통구조를 개혁하여 비용절감 및 산주수취율을 제고토록 하는것을 3대 정책방향으로 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산림법등 법령정비와 재정지원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 III. 세부추진계획

#### 1. 생산기반조성

##### 임산식용자원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으로 청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식용임산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전망으로, 밤 수요는 현재 79천톤에서 2002년 83천톤으로, 표고 수요는 현재 34천톤에서 2002년 4만톤으로, 산채류 수요는 현재 22천톤에서 2002년 32천톤으로, 고로쇠등 수액수요는 현재 1,500톤에서 2002년 3,700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산지임산물의 국민수요증가에

부응하기위하여, 밤의 경우 전체 면적의 57%인 노령목을 내피박피성·감미성 등 경쟁력있는 신품종으로 갱신해나가는 한편 병해충방제, 밤수집기등 기계화장비 지원확대와 이를 위한 작업로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고의 경우 시설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시설재배비율을 현재 약24%수준에서 2002년까지 75%수준으로 높이고, 표고재배단지를 확대해 나가며, 표고자목 공급을 위한 자목생산단지의 지정을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송이는 송이발생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장뇌·더덕·두릅 등 산채류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고로쇠·자작나무 등 수액채취 수종의 주산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외에 생산비를 절감하고, 산지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사업을 위한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국유림대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복합경영모델을 계속 개발하여 '99년부터 적용·보급할 계획이다.

##### 관상자원

조경수·분재·야생화 등 관상자원은 국민정서순화 기능이 크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현재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품가능성이 높은 품종에 대하여 우량원종의 조사 및 수집을 강화하고 시

장수요에 부응하는 신품종개발 및 대량 증식기술 연구와 이에 따른 산업화지원으로 우리꽃 및 우리분재의 국제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형질변경지역이나 산림훼손예정지내 임목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조경수로 우선 활용토록 유도하고, 2002년 월드컵 대비 도시녹화 사업에 고유수종의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토록 추진할 것이다.

또 분재단지·난단지·자생식물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연구·홍보센터화 하고, 세계분재우호연맹(WBFF)등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산림생물자원

우리나라는 야생식물 4,594종, 야생 조수류 486종 등 온대국가중 비교적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현재 국제적인 생물자원 보호가 강화되고 이를 자원으로 하는 제품개발이 치열해지면서 생명공학을 응용한 관련 산업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다.

먼저 산림내 자생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내륙 및 도서지방에 대한 식물자원 탐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집·등록·증식·복원할 「국립수목원」 설립을 추진하며, 상품화가치가 높은 식물자원에 대하여는 신품종개발과 썩는 플

라스틱과 같은 신물질·신소재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꿩, 멧돼지, 오소리 등 야생 조수의 인공사육 기술 및 시설자금등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사육을 활성화하여 농산촌소득을 높이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지정하고 야생동물관찰원, 철새공원을 조성하는 등 야생동물서식지를 생태관광자원화해 나갈 것이다.

### 산림휴양자원

최근 휴양수요는 지소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97년 현재 휴양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추산되고 2002년에는 약 420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휴양패턴도 위락·관광형에서 자연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휴양지중 산림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자연정관이 수려한 산림지대를 중심으로 자연휴양림을 현재 67개소에서 2002년 95개소로 확대·조성하고, 이를 산촌등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휴양림연계형 산촌개발모델을 우선 보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촌주민을 휴양림조성 및 운영의 주체로 육성코자 휴양림내 특산품 및 문화상품 유통판매시설을 운영토록 개방하고 산촌의 민박시설을 연계토록 하며, 휴양림 지역내 산나물채취등 소득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토록 해나갈 것이다.

## 목재자원

목재수요는 경제발전과 함께 계속 증가할 것이나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으로 원목도입여건은 악화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불량임지의 수종갱신과 천연림 보육 확대로 2050년까지 산림면적의 55% 수준인 350만ha의 경제림을 조성해 나가고, 식재수종도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묘목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조림수종은 황칠나무, 비자나무 등 특용수로 다양화해 나가는 한편, 「조림사전에고제」를 실시하여 산주 희망 수종을 적기에 공급토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육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까지 45만ha를 가꾸고 숲가꾸기에서 생기는 간벌재등 목재산물을 수집하여 축산조사료 및 목재산업 원료로 공급해나갈 것이다.

셋째, 저비용 목재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임도시설 확충 및 기계화를 추진하고, 노무제도를 개선하여 작업노동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2. 가공산업 육성

### 식용임산물 가공산업 육성

식용임산물 중 최대품목인 밤의 경우

주로 생밤위주로 유통·소비되고 있으며, 수출용 깎밤의 경우 수잡업으로 일관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깎밤의 효율적 공급기반을 조성코자 밤박피가공공장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까지 연간 약 2만톤의 깎밤공급체계를 구축코자 한다.

또한 일본일변도의 수출선과 원료밤 형태의 수출로 부가가치가 낮고 일본수요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탈피하고자 고품질 마론그라세, 밤슬라이스, 밤과자 등 수출용완제품의 개발을 위해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99년부터 3개년간 연구개발하여, 2002년부터 가공완제품 수출을 추진, 2010년까지 완제품수출로 국내 밤 1만톤을 소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타 표고 및 산체류의 가공식품개발을 추진하여 대표적 성공사례인 표고스넥 공장을 확대설치하고, 표고고추장, 표고음료등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 목재가공산업 육성

먼저 생명의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 그 산물을 이용하여 축산물 톱밥·사료, 유기질 비료, 목탄·목초액등을 생산·공급토록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국산소재재를 이용한 집성재를 생산하여 건축·가구자재로 공급함으로써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조주택 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2002년까지 30%의 국산화율을 달성화율을 달성하고, 남원목기, 춘양목제품 등 향토수종을 이용한 지역특산 목가공품 및 DIY (Do It Yourself)형 목제품 개발로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폐목재를 활용한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친환경적 목재산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현재 약 36%인 폐목재 재활용율을 2002년까지 50%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 3. 유통구조 개혁

#### 산지유통체계 확립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조직화함으로써 생산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저장시설을 2002년까지 150개소로 확대·증설할 계획이다.

#### 중간유통단계 축소

임업협동조합 조직을 중심으로 전국 임산물 유통체인망을 조기 구축하고, 현재 1개소 운영중인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2002년까지 권역별로 2개소를 추가증설하여 국산목재유통의 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대도시를 중심

으로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상설직판장 및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중간유통 단계를 축소해 나갈 것이다.

#### 유통비용 절감

날로 증가되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량·가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림수산정보센타와 연계, PC통신으로 제공하는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보서비스를 실시해나가고, 우편물을 이용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자동집배송등 전자 직거래망을 구축하여 미래 지향적인 직거래체제를 확립코자 한다.

또한 물류표준화에 따른 표준출하규격을 확대 제·개정하여 일관수송시스템 확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IV. 결 론

이와같은 정책을 기초로 임업인과 정부, 연구기관이 합심 노력한다면, 향후 우리 산림은 소득이 창출되는 복합적 생산기지로 인식될 것이며, 임업은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청정임산물을 생산하는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며, 산촌은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자원을 지속공급하는 한편, 주거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사회로 정착될 것이고, 임업인은 전체소득의 40%이상을 임업에서 올리는 당연한 직업인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확신한다.